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7/7/2016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뉴욕주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2,40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 지원 발표
이 자금으로 교통 시스템 및 뉴욕주 국제 국경을 지키는 이미 진행 중인 대테러 노력 보장
뉴욕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FY 2017 예산에 포함된 5,400만 달러 보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에 걸쳐 대테러 지원의 일환으로 뉴욕주에 2,40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긴급 사태 관리청(FEMA)에서 지원되는 이 자금은 테러로부터 교통 인프라 및 뉴욕주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주 및 연방 법 집행 기관 간 이미 진행 중인 중요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오늘 발표된 이 연방 보조금은 올 봄 Cuomo 주지사가 발표했던 것처럼 뉴욕을 보호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FY 2017 뉴욕주 예산에 포함된 총 5,400만 달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모든 뉴욕시민들의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최전선을 담당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려는 자들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장비, 자원 및 교육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계속 투자하며 이 대테러 노력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 시스템을 보호하는 2,270만 달러

특히, 직접적인 테러 공격 등 교통 인프라 보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에서는 3개의 교통 당국에 추가 2,27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자금은 Transit Security Grant Program의 일환으로, 인프라 및 계획,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 교통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은 작년 교부금보다 300만 달러 더 많은 22,498,175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MTA 자금에는 뉴욕 경찰청 순찰차 및 지하철 시스템 보호를 위한 7,076,949달러가 포함됩니다. Niagara Frontier Transportation Authority에는 총 153,300달러를 지급했고 Rochester Genesee Regional Transportation Authority에는 25,0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국제 국경을 지키는 160만 달러

미국 국경을 지키는 지역, 주 및 연방 사법 집행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160만 달러가 지급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Operation Stonegarden의 일환입니다. 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관/국경 순찰대 부문: Buffalo

- Cayuga 카운티: \$96,180
- Chautauqua 카운티: \$137,778
- Erie 카운티: \$185,855
- Jefferson 카운티: \$121,779
- Monroe 카운티: \$144,178
- Niagara 카운티: \$172,976
- Orleans 카운티: \$112,179
- Oswego 카운티: \$105,780
- Wayne 카운티: \$105,780

세관/국경 순찰대 부문: Swanton

- Clinton 카운티: \$122,030
- Franklin 카운티: \$65,264
- St. Lawrence 카운티: \$167,228
- St. Regis Mohawk 카운티: \$127,679

Kirsten E. Gillibrand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연방 자금은 우리의 경계 인근 지역사회의 안전과 뉴욕주 전체에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테러 목표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지역 사법 집행 기관들이 우리를 계속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Charles B. Range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테러의 급증하는 위협과 함께, 이 연방 정부 투자는 주 전역에 걸쳐 뉴욕시민들과 무고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 시스템의 인프라와 훈련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21세기의 뉴욕주 안보 요구를 충족하도록 이 중요한 자금을 뉴욕주에 가져오기 위해 헌신한 Cuomo 주지사를 높이 평가합니다."

Eliot Enge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TA에서 교통 보안을 위한 연방 정부 자금 중 약 1,550만 달러는 뉴욕시와 Westchester의 여행객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뉴욕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체계 중 하나로서, 지속적인 연방 정부의 지원은 뉴욕의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Metro-North 철도 시스템이, 교육, 보안 인프라 및 강력한 대응 능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항만과 국경 횡단 보호 장치로 모든 미국인들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 보안 자금 확보는 저의 가장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의회가 앞장 서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계속 믿지만 이 자금은 우리 지역사회를 계속 안전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뉴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Nita M. Lowey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의 광범위한 교통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파괴적이 될 것입니다. 이 연방 자금은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처한 급증하는 위협으로부터 뉴욕시민들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하원세출위원회 간사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José E. Serran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테러 공격의 최근 여파로 뉴욕주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요 교통 센터와 인프라를 보호함으로써 이 연방 정부 자금은 뉴욕의 대테러 노력이 강력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잘 조율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도시를 강하고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준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Jerrold Nadl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대중교통 시스템은 잠재적인 테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인 우리의 경제와 인력을 떠받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수백만여 명의 뉴욕시민들은 매일 MTA와 같은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는 우리의 주요 교통 센터 내의 대테러 활동을 지원하는 자금이 포함됩니다. 교통 인프라 보안을 지원하기 위해 MTA 및 기타 뉴욕 시스템에 1,7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한 FEMA의 Transit Security Grant Program을 통해 이 중요한 자금을 확보한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 교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쏟은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Carolyn B. Malone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민들은 이곳 가정에서 받는 테러 공격의 고통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9.11은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산 교훈이었습니다. 연방 정부 자금 중 1,500만 달러로 우리는 공격으로부터 방어력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프라는 더 안전해질 것이며, 치안은 더욱 엄격한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NYC는 어떤 상황에서도 막강한 치안을 유지할 것입니다."

Joe Crowley 하원의원: (D-Queens, Bronx)은 "최우선순위는 뉴욕시민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금은 효과적으로 테러를 방지하거나 보안에 대한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우리 도시의 혈액과 같은 존재이기에 FEMA에서 받은 이 중요한 자금을 요긴하게 사용하고 우리 인프라의 이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헌신한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Steve Israe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민으로서 우리는 예기치 않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지원금이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교통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뉴욕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앞장설 것입니다."

Sean Patrick Malone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수백만여 명의 뉴욕시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뉴욕주에서 가장 광범위한 교통 인프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동료 여러분과, 특히 우리 이웃들은 강력한 대테러 조치의 중요성을 모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Cuomo** 주지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철도, 수로, 그리고 항만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Lee Zeld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외신을 통해 해외 테러 공격에 대해 접하지만 우리 자신의 앞마당에서 진정하고 지속적인 국토 보안 위협을 안고 있다는 소식을 너무 자주 접합니다. **Florida**주, **Orlando**에서 벌어진 최근 테러 공격과 전 세계 테러의 상승의 여파로, 정부는 우리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 연방 정부 자금 지원은 우리의 뉴욕주와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절실한 희망입니다."

하원의원 Dan Donovan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뉴욕주의 최고의 테러 대상이기 때문에 의회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수준에서 확실한 기금을 받기 위해 계속 투쟁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여전히 저의 싸움은 내년 상반기 뉴욕시 국토 안보 보조금을 삭감하려는 대통령의 위험한 제안을 계속 반대하는 데 있으며 이 일이 완수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MTA 회장 겸 CEO인 Thomas F. Prendergas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통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고객의 이동을 돕는 것은 교통당국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이 자금은 인프라 보안과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인들과 수조 달러급 자산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교통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치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과 MTA가 잠재적 테러의 최우선 목표로 자리매김했고 이 교통 시스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계속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FEMA, DHS 및 TSA에서 계속 지지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향토보안비상본부장 John P. Melvill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북부지역사회가 적절한 자원을 과감하여 북부지역 국경을 따라 존재하는 도전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금은 현지 법 집행 자원들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먼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FY 2017 뉴욕주 예산에 포함된 5,400만 달러

이 테러 공격의 현대식 전개는 뉴욕주의 테러 반대 활동을 더욱 확대할 필요를 부추겼습니다. 최근 테러 공격을 보면 군대의 학살 무기를 사용하는 공조 타격과 외로운 늑대 공격을 자행하는 자생적 극단주의자들의 움직임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미국 영토에서 일어나기가 쉬우며 뉴욕주 내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러의 새로운 형태와 싸우기 위해 본 예산에는 주지사의 시정 연설에서 처음 제안된, 전주 법집행 기관의 투입을 확대하기 위한 4,000만 달러, 지역 법집행 기관의 안전

장비를 위한 1,000만 달러, 진화하는 테러 위협에 맞설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고성능 소총, 방탄복, 탄도 헬멧을 뉴욕주 경찰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4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